



금강경독송회는 매월 1·3째주 일요일 송내 법당에서 법회를 병행한다. 법당에서 재가 신도들이 법문을 듣는 모습.

# 돈 벌어 남 주는 것도 수행

## 금강경독송회... 아침·저녁 30분씩 경전 읽기

구랍 19일 부천시 송내 남부역 부근 금강경독송회(이사장 김동규) 법당에서 30여 재가불자들의 진지한 <금강경> 독경소리가 새어나왔다. 독송회는 일반발라를 법당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큰 법당 격인 마루에는 <금강반야바라밀경> 병풍과 두 장의 도통한 방식 위에 올려놓은 <금강경>이 전부였다. 불상은 없었다. 독송을 마치고 김동규 이사장(76)의 법문이 이어졌다.

김동규 이사장은 "인생에는 경제·법률·정신생활 등 3가지 축이 있습니다. 우리는 빚쟁이 신분으로 이 세상에 왔어요. 수행은 노동하지 않고 벽을 쳐다보는 일 아니라 경제생활 속에서 탐심을 닦아 내는 것입니다. 돈을 벌어서 빚쟁이에게 나눠주다 보면 탐심을 깨치게 됩니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든 강제 규범, 규칙, 습관 모두가 법률생활입니다. 법 아래에서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진심(眞心)을 닦아 내는 것입니다. 마치 막으로는 정신생활입니다. 정신생활은 몸뚱이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 경험을 관조하고 이해하며 바르게 실행하면 탐·진·치가 깨달음이 됩니다."

김동규 이사장은 일상 속 수행을 강조했다. 그는 경제, 법률, 정신생활은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기에 탐심을 닦아 내는데 경제생활, 진심을 닦아 내는데 법률생활을, 치심을 닦아 내는데 정신생활을 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의 법문은 자신의 생활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했지만 그의 스승인 故 백성욱 박사(前 동국대 총장)의 가르침이 큰 바탕이 됐다.

모이는 것이 대중화가 아니다. 눈 뜬 대중이 많은 것이며, 스님도 아니고 부모형제 처자권속 가솔이 딸린 몸이지만 아침에 남보다 30분 먼저 일어나 <금강경>을 읽고 저녁에는 남보다 30분 늦게 자고 읽자"고 지도했다.

백성욱 박사는 1910년 정릉 봉곡사에서 최후대 대선사를 은사로 출가해 경성중앙학립 졸업, 상해에서

림했다. 30~40년 전만해도 <금강경>은 지금처럼 대중화 되지 않았다. 고승들이나 공부할 수 있는 경이고, 영험이 많다는 신비한 경전으로 알려져 제 올리는 데 소용없다고 썼지 아무나 공부할 수 있는 경전이 아니었다. 백성욱 박사와 김동규 이사장을 비롯한 제자들은 백 박사가 한문에 토를 단 <금강반야바라밀경> 초판을 발행하고, 전국에 <금강경>을 보시하기 시작했다. <금강경>의 본격적인 현대화·생활화·대중화가 시작됐다. 1976년 <금강반야바라밀경 해설집> 초판 발간, 1988년 <금강경을 통한 불교 수행요제> 발간을 비롯해 서울·대구·부산 금강경독송회 정기법회 개최, 2005년 금강경독송회 사단법인 발족, 2009년 부천시 송내동 법당 개원 이후로는 매월 1,3째 주 오전 10시 정기법회를 병행하고 있다. 2009년 <활불로 추앙받던 백성욱 박사님의 금강경 이야기>를 출간하고, 2010년 5월 포켓 사이즈 경전을 37쇄 인쇄 발행에 보급하고 있다. 독송회는 2011년 백성욱 박사 기념사업회를 발족할 계획이다. (032)666-6601

이상연 기자 kemichino@gmail.com

# “‘금강경’ 이 나를 살렸다”

## 금강경독송회 김 동 규 이사장



사경 보시 인연, 소재자 발간해 '금강경'은 인류 구제하는 경전

1968년 어느날, 김동규 이사장이 스승 백성욱 박사에게 물었다.

“선생님, 제가 소사도량에서 나온 이후 눈이 나쁜 보살을 위해 <금강경>을 사경해 주었는데 그것을 보는 보살마다 한 권씩 사경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분들을 위해 다른 일을 제쳐놓고 <금강경> 사경에만 매달려도 괜찮겠습니까?”

백성욱 박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대중성을 향해 답했다.

“<금강경> 공부를 하려면 <금강경> 책이 있어야지. 붓으로 사경하는 것은 한 두 사람의 일이지요. 이 시대에는 인쇄술이 발달했으니 인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수지 독송케 하는 것이 큰 덕입니다.”

<금강반야바라밀경> 초판 작업은 이렇게 시작됐다. 당시는 <금강경> 인쇄를 맡길 만한 곳이 없었다. 불교청년의 선배 김상준 씨는 조계종 종정이던 청담 스님에게 소개장을 써 줄 것을 부탁했다. 청담 스님은 해인사 일타 스님에게 “김동규 처사가 <금강경>을 간행코자 하는데 스님이 고려대장경 중 <금강경>을 내주어 협조해 주라”는 소개장을 써줬다. 그런데 김 이사장은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그는 선생님이 재가자들이 평소 애경전과 가까이 지내고 독송할 수 있는 책자의 간행하려는 의지를 익히 알고 있었다. 목판 인쇄는 너무 커서 대중성이 없었다. 손가방

에 넣고 지닐 수도 없어 더 내키지 않았다. 김동규 이사장은 백성욱 박사의 의중을 실천해 재가들이 수지독송할 수 있는 크기의 경전을 인쇄 보급하고 전국에서 법회를 시작했다.

김동규 이사장은 1965년 출가를 결심하고, 주변 인연들과 관계를 정리하다 친구의 소개로 백 박사를 찾았다. “생활은 곧 수행”이라는 가르침을 따라 매일 같이 독송을 하던 김 이사장이었다. 출가하려면 김 이사장은 백성욱 박사가 맺어준 인연으로 결혼까지 했다. 무역회사에 다니던 그는 위

국 바이어들을 상대하면서 담배를 하루 2갑 반을 피웠고, 주당으로 불릴 만큼 술도 잘 마셨다. 그러던 중 당뇨병을 얻어 12년간 고생을 했다. 주변 친구들 사이에서는 ‘곧 죽을 놈’이라고 소문이 날 정도였다. 그는 매일 등산과 <금강경>을 독송하며 정진했다. 본격적으로 100일 기도 들어갔고 회향에 이어 다시 100일 기도 입제에 들어갔다. 문득 정신이 맑아졌다. 탐진치가 사라졌고 당뇨는 기적적으로 완치됐다.

김동규 이사장은 “법사에 감사하고, 일상에 감사하고 소중히 여겨라. 떠나려 하지 말고, 무언가 이해를 하고 실천을 하면 삶 속에서 깨달음이 온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금강경>은 불교에 가뭇물 경전이 아니며, 불자만을 위한 경전이 아닌 인류구제를 위한 경전이다”고 강조했다.

김동규 이사장은 “모든 해답은 자기 내부로부터 나온다. 인생이 뭐냐고 아무리 일러줘도 개인에 따라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이사장은 “100일을 기준으로 <금강경>을 독송하면서 나머지 생활하는 시간에도 일거수 일투족을 모두 부처님께 바친다면 밝은 생각으로 인해 자기 몸을 형성하는 세포가 밝은 생각의 영향을 받아 본래의 모습을 깨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상연 기자

## ‘금강경’ 대중화 생활화... 1968년부터 보시행

### 부모형제처자 딸린 거사들... 생활 속 수행

“성직자라 해도 생각이 세간에 향해 있으면 출가한 성직자로 볼 수 없고, 세간에 있는 범부라해도 생각이 늘 부처님을 향해 있으면 출가자이다.”

백 박사는 산 속이나 법당에 가야 수행되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백성욱 박사는 불교의 현대화·대중화·생활화에 힘써왔다. 그는 “건물이 현대화 된다고 현대화 되는 것이 아니다. 각자의 집에서 <금강경>을 읽어야 한다. 많은 사람이

독립운동에 동참했다. 파리 보배고등학교, 남독일 뵘스부르크 대학에서 공부를 마치고 1925년 <불교순전철학>으로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28년 금강산 장안사 안암에서 조국 독립을 위해 <대광광 불화엄경>을 제창했다. 1950년 내무부 장관 취임, 1953년 동국대 총장 취임, 1962년부터 부천시 소사에서 백성농장을 경영하며 후학을 지도하다가 1981년 입적했다.

금강경독송회는 1968년 4월 창

## 거사와 경전

“거사”는 부처님 당시 장자 혹은 부호 상인들을 일컫는 호칭이었다. 그들은 대부분 불교를 믿고 따랐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아닌 다, 핀디카, 육가, 장자 등이다. 대승경전인 <유마경>에서는 발발라 끄르피 혹은 유마랄, 무구칭을 유마 거사로 불렀다.

대승경전에서 본격화한 거사와 부인은 재가 불자를 일컫는 호칭으로 자리매김 됐다. 유마 거사와 승만 부인은 대승불교가 제시하는 가장 구체적인 인간상이다. 특히 대승불교는 출세가, 성불의 유

무를 차별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는 소성 거사 율효대사와 덕만 부인 선덕여왕이 재가불자로 가장 잘 알려진 인물이다. 잘 알려진 거사로는 신라시대 부설 진광세 거사를 비롯해 고려시대 청평 이자현 거사, 조선시대 월왕 김대현·이집산 거사가 있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백봉 김기주, 종달 이희익, 무애 서돈각, 불연 이기영, 백성욱 거사 등이 있다.

<금강경>은 고려대장경 권5에 수록돼 있고, <대정신수대장경> 권8에 수록돼 있다. <금강경>이 한국에 전래된 연대는 신라 진흥왕 26년(서기 565)에 진나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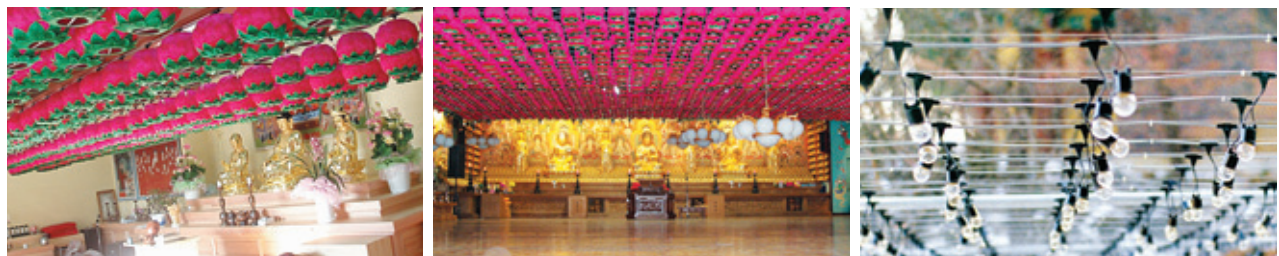
사신 유사와 명관 스님이 경장과 논장 1700여 권을 가져온 사실과 진흥왕 37년(서기 576)에 안흥법사가 중국에서 구법하고 돌아올 때 <능가경>과 <승만경>을 가져왔다는 사실로 미루어 이때를 전후한 전래된 것으로 보고 있다.



독송회에서 만든 <금강경>은 크기가 작아 휴대하며 읽을 수 있다.

###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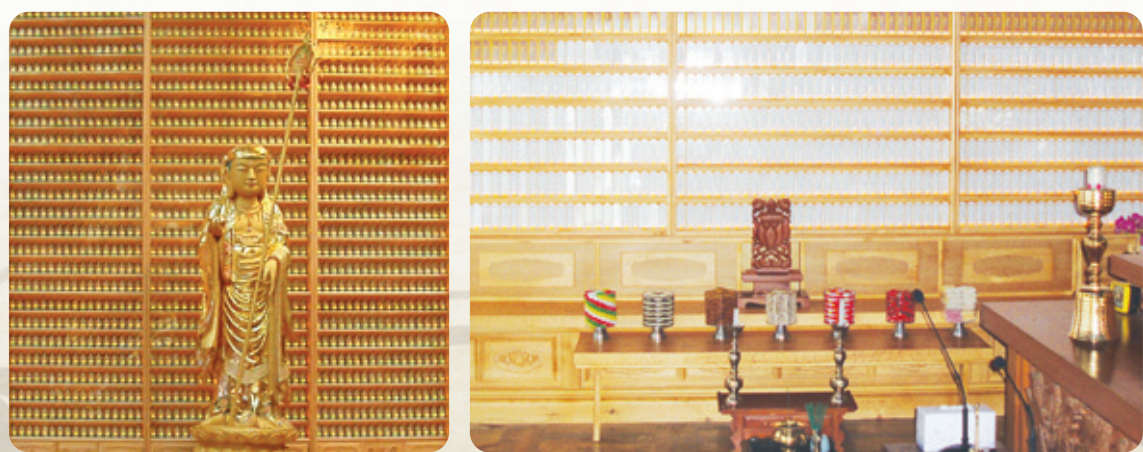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대구 여래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서울 화계사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불교에서는 KSC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 찬덕불교가 개발한 영구위패·LED 인등·LED 전구



마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용학사 극락전 영구위패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佛紀 2555年 辛卯年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 아름다운 등



칼라(보카시)연등 공단등 오색공단등 영가등 종등 ※ 주름등·종등 주문 받습니다. (사찰명 인쇄)

### 신상품 찬덕 LED 전구



1년 365일,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98원/kwh

- 내열 ABS  
내열특성 : 연화점온도가 100~120 °C로 우수한 내열특성을 가지고 있다.  
연화점이란 (물질이 가열하여 변형하는 온도)  
충격특성 : 내열성과, 내충격성 등의 물성 발란스가 우수하다.
- 경제성 비교

종 류	일반전구	찬덕 LED 전구
소비전력	10W	2W
효율	10 lm/w	50 lm/w
연간전기로	2146원	429원
수명보장		30,000 시간
- 기존 전구에 비해 잘 깨지지 않는 재질의 커버적용으로 파손의 위험이 적다.
- 발열이 적어 기존 전구처럼 뜨겁거나 다칠 염려가 없습니다.
- 전기료가 절감 되고 교체하는 번거로움 없이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찬덕불교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031)792-6288, 794-4055 / 팩스: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연등·주름등·전선시공·영구위패·LED인등·LED전구